

해남군 5년간 나무 200만 그루 심는다

해남형 ESG실현 기후변화 대응 조림·도시숲 조성·가로수 식재 산림 늘려 탄소흡수원 대폭 확충

해남군이 나무 200만 그루 심기에 나섰다. 해남군은 최근 더욱 심각해진 기후변화에 맞서 탄소흡수원인 나무심기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해남군은 탄소흡수원 2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해남형 ESG실현과 기후변화대응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내 848ha면적에 나무심기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군은 연간 40만 그루씩, 2026년까지 20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조림사업과 도시숲 조성, 가로수 식재 등을 통해 군 전체에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산림자원 조성은 탄소흡수원 확충과 목재생산·산림소득 증대, 자생수종·생육환경 등 경제적, 지리적 요소를 고려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과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올해 227ha 면적을 조성하는 데 이어 2026년까지 매년 100ha씩 확대해 나가게 된다. 특히 탄소흡수율이 가장 높은 수종인 백합나무 15ha, 상수리나무 5ha를 심어 탄소 흡수원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속성수인 백합나무는 제재목 수확과 톱밥 부산물 등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매스로 활용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의 생장 20~30년 이상부터 탄소 흡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조림사업을 통해 젊은 숲으로 대체하고 유일한 탄소흡수 소재인 목재의 생산과 확대에도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군은 조림사업 이후 조림지 풀베기, 침당굴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건강한 숲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학교숲·마을숲 조성 등 지역별 맞춤형 도시숲 조성하고 가로수 식재, 특색있는 경관숲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흑석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2022년부터 3년간 60ha 면적에 산철쭉 경관숲을 조성하고 화원반도 목포구(木浦口) 등대,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에 2023년부터 5년간 200ha 면적에 배롱나무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8기 해남형 ESG의 실현을 위해 탄소흡수원인 산림자원 확충에 적극 나서게 됐다"며 "전 군민과 함께 200만그루 나무심기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치있는 숲 조성하고 녹색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된 휴베이스 최약국. <목포시 제공>

목포시 치매안심가맹점 2곳 지정 현판식

초당약국·휴베이스 최약국

목포시가 치매 걱정 없는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가맹점 2곳을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7일 지정된 치매안심가맹점은 초당약국(용당1동)과 휴베이스 최약국(목원동) 등 2곳이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주민에게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로의 서비스 연계,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등 치매극복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목포시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건전한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목포시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료비 지원, 조기검진, 돌봄 센터 운영 등 치매극복에 힘쓰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를 조성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마늘쪽 분리도 파종도 기계로...진도군 현장 시연회

농촌 일손·인건비 절감 기대

진도군이 마늘 파종 기계화 촉진을 위한 '마늘 기계 파종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

12일 열린 시연회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장영우 진도군의회 의장, 농촌진흥청·농협중앙회 관계자, 진도군 마늘연구회 회원, 일반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시연회는 마늘 파종기 2종(트랙터 부착형 6조·8조)과 마늘 쪽 분리기 등 마늘재배 발작물 농업기계의 현장 시연과 함께 남도마늘·홍산마늘·단영마늘·대서마늘 등을 전시·관람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진도군은 시연회를 통해 마늘 기계 파종에 대한 농가의 인식을 바꿔 관행적인 인력파종 작업을 기계화 파종 작업으로 유도해 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절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늘은 다른 품종과 견줘 인건비 등 생산비가 높아 재배면적이 적다. 이에 군은 기계화 영농을 통해 2025년까지 100ha 이상 재배 면적을 늘리고 지속



적으로 명품 마늘 산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자료에 따르면 남도마늘 등 난지형 마늘 수확량은 3.3㎡당 평균 5kg으로 평균 가격은 2만6000원(5kg) 선으로 겨울 대파 대비 소득이 안정적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농촌 고령화와 함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계화가 촉진돼야 한다"며 "이번 시연회를 통해 마늘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완도군 LPG배관망 안전도 요금도 '만족'

450억원 투입 구축 4000세대 공급

완도군이 구축한 LPG배관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은 국비 등 총 450여억 원을 투입, LPG 저장 시설과 배관망 등을 구축해 현재 9개 마을 4000여 세대에 LPG를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사업 완료 후 안전 점검은 물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가스 요금이 기존 대비 50% 가량 인하됐고, 용기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등 에너지 복지 개선돼 주민들 만족도가 높다.

LPG 배관망이 구축되기 전에는 프로판 용기로 가스를 사용해 소음이 발생하고 호스 등이 노출돼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LPG 저장 시설과 배관망 등을 구축하면서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지역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가스 요금이 한 달 평균 100만 원 정도였다가 50%로 줄었는데, 가스 요금이 오르는 걸 보면 정말 설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가스가 떨어져 전화하는 일이 없어서 너무 편하다"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고급, 신지, 군외, 약산 등 먼 단위와 생일, 소안 등 도서 지역의 작은 마을에도 LPG 배관망 시설을 확충해 도서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 선정

국비 16억원...5개면 태양광 시설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영광군은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특정 지역의 주택과 상가 등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영광군은 사업공모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의 심층(현장) 평가를 거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총사업비 37억 원(국비 16억·지방비 17억·자부담 4억)을 투입해 2023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2021년도 사업으로 2개 읍면(영광읍, 군서면)에 458개소(45억 원)를 설치했으며, 올해 5개 읍면(백수읍, 흥농읍, 법성면, 영광읍,

군서면) 457개소(45억 원)를 대상으로 12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2023년 사업대상지는 대마면과 묘량면, 불갑면, 군남면, 염산면 등 5개 면으로 448개소에 태양광 386개소(1408kW), 태양열 62개소(843㎡)를 설치 추진하게 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효과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 에너지 복지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유치해 '민선 8기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신안 압해도서 14~23일 대한민국 분재대전

수령 2000년 주목 등 250점 전시

신안군은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에서 14일부터 23일까지 '2022 대한민국 분재대전'이 열린다.

이번 분재대전 전시회에서는 (사)한국분재협회 소속된 회원들이 출품한 1000여점의 작품 중에 심사를 통과한 250점이 전시된다.

또 신안군이 지난해 공매를 통해 구입한 200억원 상당의 컬렉션 중에 수령이 2000년 된 주목 작품과 공인감정가 20억원 분재 등 10여 점의 명품 분재작품이 처음으로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 주목은 신안군이 국제경매에 의해 압류된 것을 6억~10억원을 주고 공매를 통해 사들였다.

특히 10억원을 주고 산 천년 주목의 조형미는 완벽한 천년의 세월이 느껴질 만한 예술성을 인정 받고 있다고 신안군은 전했다.

군은 생육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이 주목을 지난해 10월 공매를 받아 분재공원으로 옮긴 뒤 온갖 정성을 다했다.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마련해 분재대전 기간 초보자를 위한 분재교실과 도슨트 프로그램, 분재포럼, 분재 포토존이 운영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